

(II)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

니치렌 대성인의 생애

여기에서는 니치렌 대성인(日蓮大聖人)의 생애를 다음의 8 항목으로 나누어 설명하겠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연령은 한국식으로 기록합니다.)

- (1) 탄생, 출가(出家), 유학(遊學)
- (2) 입종 선언(入宗宣言)
- (3) <입정안국론(入正安國論)> 제출과 법난(法難)
- (4) 다쓰노구치 법난과 발적현본(發迹顯本)
- (5) 사도 유죄
- (6) 미노부 입산(身入山)
- (7) 아쓰하라 법난과 대어본존 건립
- (8) 닛코 상인(日興上人)에 대한 부촉과 입멸(入滅)

(1) 탄생 · 출가 · 유학

니치렌 대성인은 1222년 2월 16일 이와 지방 나가사 군 도조 마을의 어천(현재 지바 현 이와 군 아미쓰의 고미나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니치렌(日蓮)은 금생(今生)에는 빈궁하천(貧窮下賤)한 자로 태어나고 전다라(旣陀羅)의 집에서 출생하였노라』(어서 958쪽)라고 말씀하셨듯이 대성인은 어업으로 생계를 꾸려 가는 서민 계층 출신이었습니다. 어렸을 때의 이름은 전니차마로라고 했으며 12살 때 이와 지방의 세이초 사(清澄寺)에 들어가 당시의 초등 교육을 받으셨습니다. 세이초 사는 이 지방의 유력한 천태종 사원이었지만 당시에는 이곳에서도 밀교(密敎)와 정토(淨土) 신앙이 번성하였습니다.

대성인은 12세 때부터 세이초 사의 본존인 허공장 보살을 보며 『일본 제일의 지자(知者)가 되게 하소서』(어서 888쪽)라는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서원을 세운 것은 당시 대성인이 다음과 같은 의문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여러 어서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승구의 난(1221년) 때 조정 측이 천태 진인의 비법으로써 승리를 기원하였는데도 왜 참배했을까? 불교는 석존 일불(一佛)이 설한 가르침인데 왜 각 종파로 나뉘어 다투는 것인가?’

요컨대 ‘불법은 민중을 구하고 사회의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있는 것일진대 왜 현실에서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일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민중과 사회를 구하는 지자(知者)가 되고 싶다는 것이 어린 대성인의 바람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성인은 불법을 구명하기 위해서 출가하기로 결심합니다. 16세 때 세이초 사의 도젠보(道善房)를 스승으로 하여 득도하고 제쇼보렌초(是聖房蓮長)라는 이름을 쓰셨습니다. 아무런 일체경의 승열(勝劣)을 알 수 없는 지혜 즉 모든 불법의 근저라고 해야 할 부처가 깨달은 법인 ‘묘법(妙法)’의 지혜를 얻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하여 대성인은 <세이초사대중중(清澄寺大衆中)> 어서에서 『생신(生身)의 허공장보살(虛空藏菩薩)에게서 커다란 지혜를 받은 일이 있었다. 일본 제일의 지자가 되게 하소서 하고 말한 것을 가엾다고 생각하셨음인지 밝은 별과도 같은 지혜의 대보주(大寶珠)를 내려 주셔서 오른 소매에 받았다』(어서 893쪽, 통해)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가마쿠라, 교토, 나라 등 각지의 여러 큰 사원을 돌면서 유학을 시작하여 일체경을 정독(精讀)함과 동시에 소승, 대승 각 종파의 교의의 본질을 검증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일체경을 보았더니 팔종(八宗) 및 일체경의 승열(勝劣)을 거의 알게 되었으며』(어서 893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로서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ㄱ) 법화경이야말로 석존이 설한 일체경 가운데 가장 뛰어난 경전이다.

(ㄴ) 내가 깨달은 묘법은 법화경 간요(肝要)의 법인 남묘호련계교(南無妙法蓮華經)이다. 석존 멸후에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법으로 南無妙法蓮華經을 넓혀야 한다.

(c) 간요의 묘법을 깨달은 나는 법화경에서 말법의 사람들을 구제하는 사명을 부처에게 위탁받은 지용(地湧)의 보살(본문 112쪽 참조)에 해당한다. 특히 그 상수(上首)인 상행보살(上行普賢)도 다시 태어나, 묘법을 말법(末法)에 넓혀야 할 법으로서 나타나 가야 할 사명이 있다. - '말법이란 석존의 불법이 구제의 힘을 상실한 시대를 말하며 석존 입멸 후 2천 년이 지난 때를 말합니다. (삼시의 흥경, 본문 130쪽 참조)

(e) 지금의 일본에 넓혀진 여러 종파의 교의에는 정법인 법화경에 위배하는 '망법(謗法)'의 요소가 있다. 이 여러 종파의 방법을 책하면 대난(大難)이 닥쳐 오는 것은 필연이다.

(2) 입중 선언

이러한 유학으로 묘법 흥통에 대한 사명과 방도를 확인하신 대성인은 대난을 각오하시고 묘법 흥통의 실천에 착수할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그리고 1253년 4월 28일 정오, 세이초 사의 지불당(持佛堂)에서 염불 등을 과점함과 동시에 南無妙法蓮華經을 드높이 부르며, 말법의 민중을 구제하는 유일한 정법을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이른바 '입중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때, 지금까지의 렌초라는 이름을 바꾸어 스스로 '니치렌(日蓮)'이라고 이름하셨습니다. 입중 선언 때에 염불을 엄하게 비판한 대성인에 대해 세이초 사를 옹호하는 이와 지방 도조 마을의 지두(地頭)이자 염불종의 강신자인 도조가게노부(東條景信)는 몹시 분노했습니다.

이러한 가게노부가 대성인의 신변을 위협했기 때문에 대성인은 세이초 사에서 물러나게 되었습니다. 가게노부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대성인은 가미쿠라로 떠나게 되었는데 그 전에 부모님을 정법으로 인도하고 아버지께는 묘니(妙日) 어머니께는 묘연(妙蓮)이라는 법명을 주셨다고 전해집니다. 가미쿠라에서는 나고에에 있는 마쓰바기야쓰에 초암을 마련하여 홍교를 시작하셨습니다. 당시 가미쿠라에 퍼져 있는 염불종과 선종의 파절에 주력하면서 법화경의 정의를 살하고 南無妙法蓮華經의 제목을 부르며 넓히셨습니다.

그해 11월, 후에 6인에 본제자인 육노승 가운데 한 사람이 되는 벤야사리닛쇼(弁阿梨梨日暎)가 마쓰바기야쓰 초암을 찾아와 대성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또 재가(在家) 신도로는 같은 해 시모우사 지방을 지키는 자바 씨의 가신이었던 도키조닌(富木常人)이 대성인에게 귀의하셨습니다. 그 후 대성인의 주장에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차례로 늘어나 1256년경에는 시조고고(四條金吾), 구도요사타가(工藤吉隆), 이케가미무네나가(池上宗仲) 등이 입신하셨습니다.

또 대성인은 초암 등지에서 설법을 하면서 저술 활동도 시작하셨습니다. 이 무렵 <제종문답초(諸宗問答抄)> <일생성불초(一生成佛抄)> 등의 저술을 남기셨습니다.

(3) <입정안국론> 제출과 법난

대성인이 가미쿠라에서 홍교를 시작하셨을 당시 매년처럼 기상 이변과 대지진 등 천재지변이 잇따랐고 대기근, 대화재, 역병 등도 계속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1257년 8월에 가미쿠라 지방을 덮친 대지진은 가미쿠라에 있는 중요한 건물을 모조리 무너뜨리는 파괴력을 초래하였으며 사람들을 고뇌의 말바닥으로 내동댕이쳤습니다.

대성인은 이 지진을 계기로 세상을 불행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을 밝히고 그것을 근절하는 방도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1258년 2월, 스루가 지방<현재 시즈오카 현 중양부> 이와모토의 잇소사(實相寺)에 머무르며 일체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때 제2조 닛코상인(日興上人)이 대성인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입정안국론>을 쓰시어 1260년 7월 16일, 당시 실질적인 최고 권력자였던 호조도키요리(北條時賴)에게 제출하셨습니다. 이것이 제1회 국주 간효(國主諫勸)입니다.

<입정안국론>에서는 먼저 천재지변이 계속되는 원인은 온 나라 사람들이 정법에 등을 돌리고 사법(邪法)을 믿기 때문이며 그 원흉은 호넨(法然)이 살하기 시작한 염불에 있다고 지적하시고 그 일흉을 단절하고 정법을 신수(信受)한다면 평화 낙토가 현실로 나타나지만 그렇지 않다면 경문에 나타나 있는 재난 중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계번역난(自界叛逆難: 내란)과 타국침입난(他國侵襲難: 타국의 침략)의 두 가지 재난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며 속히 정법에 귀의하라고 간효하셨습니다.

그러나 막부의 요인은 대성인의 지성이 담긴 간효를 무시 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염불자들은 은밀하게 막부 요인의 승인을 받아 대성인에게 박해를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260년 8월 27일 밤, 집권 호조나카토키의 아버지 호조시게토키를 등에 업은 염불자들이 대성인을 없애려고 마쓰바기야쓰의 초암을 덮쳤습니다. 마쓰바기야쓰 법난. 다행히도 이때 대성인은 난을 피해 잠시 가미쿠라를 떠나기로 하셨습니다.

이듬해 1261년 5월 12일, 막부는 가미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을 체포하여 이즈의 이토로 유죄(流罪)를 보냈습니다. <이즈 유죄>. 대성인은 유죄의 땅에서 후나모리야사부로(船守彌三郎) 부부에게 수호받으셨는데 그 지역의 지두인 이토하치로사에몬이 대성인의 보살핌으로 증병을 고치게 되자 대성인에게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또 대성인은 이즈에서 <사은초(四恩抄)> <교기사국초(教機寺國抄)>등을 저술하시어 자신이 법화경의 행자임을 밝히셨습니다.

1263년 2월 호조도키요리의 지시로 이즈 유죄에서 사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오신 대성인은 이듬해에는 고향인 이와 지방으로 떠났습니다. 1264년 11월 11일 대성인 일행은 이와 지방 아미쓰에 있는 구도요시타카의 저택으로 향하는 도중 고미쓰비라에서 지두인 도조가게노부의 군사에게 습격을 당하였습니다. 이때의 전투에서 제자 교년보와 신도인 구도요시타카가 사망했을 뿐 아니라 대성인도 이마에 상처를 입고 왼팔이 부러졌습니다<고미쓰비라 법난>.

(4) 다쓰노구치 법난과 발적현본

1268년 윤1월 몽고에서 보낸 국서가 가마쿠라에 도착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몽고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군대를 동원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성인은 <입정안국론>에서 예언하신 타국침략난이 현실로 나타나자 4월에 <안국론어감유래(安國論御由來)>를 막부 관계자에게 제출, 악법(악법)에 대한 귀의를 그만두라고 간요하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막부는 대성인의 주장을 묵살하였으므로 대성인은 10월에 당시의 집권자 호조도키무네를 비롯한 막부 요인 그리고 고쿠리쿠 사(極樂寺) 료칸(良觀), 겐초 사(建長寺) 도류(道流) 등 가마쿠라의 여러 큰 사원의 승려 등 모두 11곳에 서장을 보내어(<십일통어서(十一通御書)>) 자신과 공장 대결(公場鬪決) 공격인 자리에 서하는 법포)을 하라고 외치셨습니다.

<십일통어서>에 의한 제의에도 불구하고 막부도 타종도 성의 있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기는커녕 막부는 대성인의 교단을 위협시하며 어떻게 탄압할 것인지 검토하였던 것입니다.

대성인은 격심한 박해에도 굴하지 않고 여러 종파의 그릇된 교의를 엄하게 파멸해 가셨습니다. 그 대성인의 여러 종파에 대한 파멸은 ‘염불무간(念佛無間), 선천마(禪天魔), 진언망국(眞言亡國), 율곡적(律國賊)’ 이라는 ‘사개(四箇)의 격언(格言)’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1271년에 전국적으로 대한발이 몰아쳤을 때 대성인은, 막부와 결탁하여 막대한 영향력을 지닌 진언율종의 승려 고쿠리쿠 사 료칸이 기우제를 지낸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누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느냐로 승부를 가리자고 료칸에게 제의하였습니다.

즉 만약 료칸이 7일 안에 비를 내리게 하면 대성인이 료칸의 제자가 되고 만약 비를 내리지 못하면 료칸이 대성인에게 귀의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료칸이 기우제를 실시했던 6월 18일부터 7일동안 비는 한번도 내리지 않았고 이에 료칸은 7일이라는 기간을 연장하겠다고 제의한 후 다시 기우제를 지냈으나 연장한 7일 동안에도 비는커녕 폭풍만 불어다쳐 료칸은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그러나 료칸은 패배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대성인에게 더 한층 깊은 원한을 품게 되어 부하인 염불승 교빈(行穢)의 이름으로 대성인을 고소하고 막부요인과 그 부인들에게 손을 써서 권력으로 대성인을 탄압하고 획책하였습니다.

료칸은 당시 사람들에게 불법을 터득한 고승으로서 추앙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력과 결탁하여 이익을 탐하고 있었는데 니치린 대성인은 료칸에 대해 법화경 권지품 제 13에 설해져있는 ‘삼류(三類)의 강적(強敵)’중의 참성증상만(禪聖增上慢)에 해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성증상만’이란 외견은 성인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으면서도 내면은 탐욕에 집착하여 권력에 다가서서 정법을 혼동하는 자를 박해하는 고승(高僧)을 말합니다.

9월10일 막부로부터 호출된 대성인은 사무라이도 로코(侍所: 무사를 단속하는 관청)의 소사(所司) 차관인 헤이노사이에몬노조요리쓰나(平左衛門長頼綱)에게 심문받았습니다. 그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이에몬노조에게 불법의 범리를 근거로 하여 나라를 인온하게하는, 한 나라의 지도자가 갖추어야할 자세를 실득하여 간요하였습니다. 이를 후인 9월 12일 저녁, 헤이노사이에몬노조가 무장한 병사들을 인솔하고 미쓰비카이쓰 초암을 유린, 대성인을 역적처럼 취급하며 체포하였습니다.

이때 대성인은 헤이노사이에몬노조를 향해 ‘일본의 기둥인 대성을 박해한다면 반드시 자계만역·타국침략의 두 가지 난이 일어난다고 말하며 강하게 간요하였습니다.

막부에 연행된 대성인은 사도(使)로 유죄되는 처분을 받게 되었지만 헤이노사이에몬노조는 은밀하게 대성인을 참수형에 처하려고 획책하였습니다. 대성인 한밤중에 가마쿠라의 변두리에 있는 다쓰노구치의 처형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사형을 막 집행하려고 할 때 갑자기 에노시마 방향에서 ‘동그란 공모양의 광채가 북서쪽으로 밤하늘을 가르며 스쳐 지나갔습니다. 병사들은 그 물체를 겁을 집어먹고 두려워하여 참수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다쓰노구치 법난>

이 일은 대성인 자신의 일대(一代) 홍교에서 극히 중요한 의의를 갖는 사건이었습니다. 즉 대성인은 다쓰노구치 법난 때에 명자범부(名字凡夫)라는 적(迹)임시 모습을 열고 범부의 몸이라는 당체에 구원원초(久遠元初) 자수용보신여래(自受用報身如來)라는 본지(本地, 본래의 경지)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적현본(發迹顯本) 적<迹>을 열어 본<本>을 나타냄, 본문 50쪽 참조’이라고 합니다. 이 발적현본 이후 대성인은 말법의 본불(本佛)로 서게 되었으며 만인이 근본으로서 존경하고 자신의 근본으로 신수해야 할 만다라(曼荼羅) 본존님을 도현하였습니다.

(5) 사도 유죄

대성인을 다쓰노구치에서 처형하는 데 실패한 막부는 그 후로도 대성인을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해 약 1개월 동안 대성인은 사가미 지방의 에치<현재 가나가와 현 이쓰키 시 북부>에 있는 혼마로쿠자에몬(本間六郎左衛門) 사도 지방의 차안 경비 담당자)의 저택에 머물렀습니다. 결국 사도로 유죄를 보내기로 최종 결정되어 대성인은 1271년 10월 10일에 에치를 출발하여 11월 1일에 사도의 쓰카하라라는 묘지에 있는, 다 쓰러져 가는 삼매당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상황은 후한의 기후에 옷과 음식도 부족하였으며 대성인의 목숨을 노리는 사도의 염불자들이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듬해 1272년 1월 16일 사도뿐 아니라 호쿠리쿠·신에쓰 등에서 여러 종파의 승려들 수백 명이 모여서 대성인에게 법론 도전을 해 왔지만 대성인은 오히려 각 종파의 시의(弔義)를 모조리 논파(論破) 하셨습니다<쓰카라하 문답>.

또 2월에는 호조 일문(一門)에서 내분이 일어나 가마쿠라와 교토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2월 소동>. 대성인이 다쓰노구치 법난 때 예언한 자계번역의 난이 불과 150일 후에 현실로 된 것입니다. 그 해 초여름에 대성인의 귀양지는 쓰카하라에서 이치노시로로 옮겨졌지만 염불자들에게 목숨을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닛코 상인은 대성인에게 상수급사(常壽給仕) 하며 고난(苦難)을 함께 하셨습니다. 또 사도의 땅에서도 대성인에게 귀의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부쓰보(阿佛房) 부부, 고우입도(國府入道) 부부, 나카오키입도(中興入道), 사이렌보 나치조(嚴蓮房日淨) 등입니다. 또 대성인은 사도에서 중요한 어서를 많이 저술하셨는데 그 가운데 특히 중요한 어서로는 <개목초(開目抄)>와 <관심의 본존초(觀心本尊抄)>를 들 수 있습니다.

1272년 2월에 저술하신 <개목초>는 니치렌 대성인이야말로 주사친(主師親)의 삼덕(三德)을 갖추신 말법의 본불님임을 밝혀셨기 때문에 '인본존개현(人本尊開顯)의 서(書)'라고 합니다.

또 1273년 4월에 저술하신 <관심의 본존초>는 말법의 중생이 성불하기 위해 수지해야 할 南無妙法蓮華經의 본존에 대해 설하여 밝히고 있어 '법본존개현(法本尊開顯)의 서(書)'라고 합니다. 1274년 2월 대성인은 사면되어 3월 13일에 사도를 출발, 가마쿠라로 돌아오셨습니다. 4월에 헤이노사에몬노조와 대면한 대성인은 사법(邪法)으로 몽고를 막겠다는 기도는 실행하지 말라고 막부에 강하게 간혹함과 동시에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질문에 답하여 금년 내에 반드시 몽고가 침략해 올 것이라고 예언 하셨습니다. 이 예언대로 같은 해 10월에 몽고의 대군이 규슈를 습격했습니다<문영의 역>.

이것으로 자계번역난·타국침판난의 두 가지 예언이 적중하게 되었습니다. 대성인은 ㉠입정안국론(入正安國論)의 제출에 의한 간혹와 예언 ㉡헤이노사에몬노조가 체포하려 왔을 때의 간혹와 예언 ㉢사도 유죄의 사면 후 막부에 대한 간혹와 예언 이 3가지를 '세 번의 고명(高名)'이라고 칭하셨습니다.

(6) 미노부 입산

사도 유죄 후의 간혹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니치렌 대성인은 '세 번 나라를 위해 간혹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산림(山林)에 들어가라는 고사에 따라 가이 지방<현재 아마나시 현> 하키리의 미노부 산(身延山)에 들어가실 것을 결의하셨습니다. 미노부는 닛코 상인의 교화로 대성인의 문하가 된 하키리로쿠로사네나가(澁木井六郎廣長)라는 지두가 다스리던 곳입니다.

대성인은 1274년 5월 17일에 미노부의 하키리사네나가의 저택에 도착, 6월 17일에는 미노부 산 속에 검소한 암자를 지어 그곳에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나 대성인의 미노부 입산(入山)은 단순한 은거가 아니었습니다. 미노부에서 대성인은 영법구주(永法久住)를 위해 <신시초(撰時抄)> <보은초(報恩抄)>등 다수의 어서를 집필하여 대성인 불법의 인류사적 의미를 설하여 밝혔을 뿐 아니라 법화경 강의 등을 통하여 미래의 광포를 잠재울 인재 육성에 전력을 기울이셨습니다.

또 어소식(御消息: 문하에게 보내는 편지)을 많이 쓰시어 제가 신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심을 격려하고 각자가 인생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하셨습니다.

또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매우 깊은 뜻이 닛코 상인 등에게 구전(口傳)되었는데 이것은 <어의구전(御義口傳)>등의 강의록, 또 <백육개초(百六箇抄)>, <본인묘초(本因妙抄)> 등의 상전서(相傳書)로 정리되어 남아 있습니다.

(7) 아쓰하라 법난과 대어본존 건립

니치렌 대성인께서 미노부에 입산하신 후에 스루가 지방<현재 시즈오카 현>의 후지방면에서는 닛코상인을 중심으로 절복·홍교가 진척되어 천태종등의 승려와 신도가 지금까지 만든 신앙을 버리고 대성인에게 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종래의 천태종 사원인 시쿠쿠원(四十九院)과 잇소 사(實相寺) 등에서 박해를 자행하기 시작하였고 아쓰하라의 류센 사(龍泉寺)에서는 원주대(院主代) 교치(行智)가 책모를 꾸며 농민 신도를 협박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279년 9월21일 아쓰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원주(院主)의 눈에 침입하여 벼를 훔쳤다는 억울한 죄로 체포되어 가마쿠라로 연행되었습니다. 농민신도는 사무라이 도코로의 소사(所事)인 헤이노사에몬노조의 사택에서 혹독한 취조를 받으며 법화경에 대한 신심을 버리라고 협박당했지만 모두가 굴하지 않고 신앙을 관철하였습니다.

그 결과 진시로(神四郎), 야고로(彌五郎), 아로쿠로(彌六郎)의 삼 형제가 처형당하고 나머지 17명은 추방되었습니다<10월 15일 일설에는 이듬해 4월 8일>. 이것이 '이쓰하라 법난'입니다.

대성인은 농민 신도들이 보인 불석신명(不釋身命)의 모습에서 대난을 견뎌 내는 강성한 신심이 민중 차원으로 정착되었음을 느끼시고 10월 1일에 저술하신 <성인어난사>에서 '출세(出世)의 본회(本懷)'를 이를 때가 왔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언 대로 1279년 10월 12일에 일염부제총여(一嚴浮提總與 전 세계 사람에게 수여한다는 뜻)의 대어본존을 건립하셨습니다.

'출세의 본회란 부처가 이 세상에 출현한 목적이라는 뜻으로, 대성인이 말법이라는 세상에 출현하신 것은 말법 만년(末法万年)의 일체중생을 구제하는 자신의 대원(大願)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쓰하라 법난에서 민중의 강성한 신심에 호응하여 1279년 도현하신 대어본존은 모든 민중을 구제한다는 니치렌 대성인의 대원을 담아 광선유포를 위해 나타나신 것입니다.

(8) 닛코상인에 대한 부촉 그리고 입멸

1281년 11월 미노부에 십간사면(十間四面)의 대방(大坊)이 완성되어 구온 사(久遠寺)라고 이름하였습니다. 1282년 9월 대성인께서는 대성인 일대에 설하고 넓히신 모든 법문과 일염부제총여의 대어본존을 닛코상인에게 부촉하시고 광선유포의 사명과 책임을 의탁하셨습니다.

미노부에서 실시된 이 부촉을 '미노부 상승(身延相承)'이라고 합니다<부촉내용에서 '일기홍법 부촉(一期弘法付嘱)'이라고도 한다>. 이에 비해 후에 이케가미에서 10월에 실시된 부촉을 '이케가미 상승(池上相承)'이라고 합니다<나중에 설명할 부촉 내용에서 '미노부 산 부촉'이라고 한다>. 또 이 두가지를 총칭하여 '이케상승(二箇相承)'이라고 합니다.

9월 8일 대성인은 제자들의 권유로 히타치 지방<현재 이바라키 현 북부와 후쿠시마 현 남동부>으로 온천 요양을 위해 9년 동안 거주하셨던 미노부 산을 떠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사시 지방<현재 도쿄>의 이케가미무네나카(池上宗仲)의 저택에 머무르시며 후사(後事)에 대해 명확하게 결정해 주셨습니다.

9월 25일에는 병든 몸을 무릅쓰고 문하들에게 <입정안국론>을 강의하셨습니다. 이것이 대성인의 마지막 설법이 되었습니다.

10월 8일에 닛쇼(日昭), 니치로(日朗), 닛코(日興), 니코(日向), 닛초(日頂), 니치지(日持)의 여섯 명<나열된 것은 입문한 순서>을 선발하여 '본제자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을 '육노승(六老僧)'이라고도 합니다. '육노승'을 선발한 것은 대성인이 돌아가신 후에 각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문하의 중심으로 각각의 연고나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것이지 법의 부촉을 여섯에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육노승' 중에서도 닛코 상인이 신행학(信行學)에서 가장 뛰어났습니다. 대성인이 이즈와 사도, 이렇게 두번의 유죄를 기렸을 때에도 대성인과 함께 하시며 상수급사하셨을 뿐 아니라 절복·홍교와 문하 육성에서도 발군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성인을 말법의 본불님으로 우러러 받들고 대성인 불법의 깊은 뜻을 올바르게 믿고 이해한 닛코 상인이 부촉을 받으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10월 13일 대성인은 입멸에 앞서 다시 한 번 닛코 상인에게 부촉을 하시고 닛코 상인을 미노부 산 구온사의 별당<주자>으로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케가미 상승'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니치렌 대성인은 이케가미무네나카의 저택에서 61세로 그 존귀한 생애를 마치셨습니다. ■

〈 니치렌(日蓮) 대성인의 생애 연표〉

서기	聖壽	대성인의 발자취	일반역사
1222	1	2월 16일 이와 지방 나가사군 도조 마을 어촌에서 탄생	한해 전 승구의 난
1233	12	봄에 이와 지방 세이초 시에 올라가 도젠보에게 사사	
1237	16	세이초 시에서 득도하여 제쇼보덴초라고 이름함	
1239	18	가마쿠라 등으로 유학	
1242	21	헤에이 산 등으로 유학	집권 호조야스토키 사망
1246	35	3월 8일 닛코상인 가이 지방 가자카자와에서 탄생	호조도키요리 집권
1253	32	4월 28일 세이초 시에서 입종 선언 니치렌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가마쿠라의 마쓰카기야쓰에 초암을 만들어 홍교를 개시함 도키조닌이 문하로 됨	호조도키요리 겐초시를 창건, 도류를 개산으로 함
1255	34	〈일생성불초〉등을 술작	
1256	35	시조강고, 고도요시타카, 아케가미무네나카 등이 입신	호조도키요리 하야, 호조나기토키 집권
1257	36	〈입정안국론〉집필에 대하여 구상하기 시작함	8월 23일 가마쿠라 대지진
1358	37	이와모토의 짓소 시에서 일체경을 열람 닛코상인 짓소 시에서 대성인의 제자가 됨	
1260	39	7월 16일, 〈입정안국론〉을 호조도키요리에게 제출하여 막부에 간요함 8월 27일 마쓰카기야쓰 법난에 니치모쿠 상인 탄생	몽고 쿠빌라이 즉위
1261	40	5월 12일, 이즈 지방 이토에 유좌됨 (이즈 유좌) 닛코상인, 이즈로 따라가 상수급사	호조시게토키 사망
1262	41	〈사은초〉〈교사국초〉〈현방법초〉를 저술	
1263	42	2월 22일 유좌에서 시면되어 가마쿠라로 돌아옴	호조도키요리 사망
1264	43	11월 11일, 이와 지방 도조 마을에서 지두 도조 케노부에게 습격당함(교사쓰 바라 법난)	

1268	47	10월11일, <십일통아서>를 저술하시어 호조도키무네를 비롯한 관계자들에게 보냄	윤 1월 몽고의 국서가 막부에 도착
1271	50	여름, 기우제의 승부에서 고쿠리쿠사 료칸을 포함 9월 12일, 헤이노시에몬노조에게 체포됨(다쓰노구치 법난), 사기미 지방의 혼마로쿠로시에몬의 관아로 이송 10월 10일, 사도로 향함 11월 1일, 쓰카하라 삼매당으로 감 <개목초> 집필을 구상	
1272	51	1월 16일, 쓰카하라 문답 2월에 <개목초>를 저술	2월에 막부에서 내란(2월 소동)이 발생
1273	52	4월 25일 <관심의 본존초> 저술	
1274	53	3월 13일, 사도 유죄에서 사면 3월 26일, 가미쿠리예 도착 4월 8일, 헤이노시에몬노조와 만나 간요함. 연내에 몽고의 침략이 있을것이라 예언 5월 17일, 미노부 입산	10월 제1차 몽고의 침략(문영의 역)
1275	54	닛코 상인의 교화로 스루가의 천태종 사원 승 등이 대성인의 문하가 됨. 그로 인하여 천태종 사원 측으로부터 박해를 받음. 박해를 받고 있는 이케가미 형제, 시조강고에게 <형제초> <차경난지어사> 등을 보내 격려함 <선사초> 저술	고쿠리쿠 사가 화재로 소실됨 9월, 몽고의 사신을 막부가 다쓰노구치에서 참수
1276	55	7월 21일, <보은초> 저술	
1277	56	6월 25일, 시조강고를 대신하여 에마씨에게 잔장을 집필(요리모토잔장)	봄부터 역병이 유행
1278	57	1월 1일, <어의구잔>을 완성	도류 사망
1279	58	9월 21일, 아쓰하라의 농민 신도 20명이 체포됨(아쓰하라 법난) 10월 12일, 일영부제총여의 대어본존 간립하심	7월, 몽고의 사자를 막부가 참수
1281	60		5월 5일, 제2차의 몽고의 침략(홍안의 역)
1282	61	4월 8일, <삼대비법초> 저술 9월 8일, 미노부 산에서 내려옴 9월 18일, 이케가미무네나카의 자택에 도착 10월 13일, 대성인 입멸	12월, 호조도키무네가 가미쿠리예 엔카쿠 사 창건